# 수도권-지방아파트 '양극화' 뚜렷

지방아파트 매매가 전셋값 하락세 6월 분양물량도 5월대비 41% 감소 지역경제 침체·대출심사 강화 원인

아파트 시장이 심상찮다. 수도권은 여전히 활황을 이어가는 반면 지방에는 이상조짐이 일고 있다. 매매가가 하락 세로 돌아서고, 전셋값도 4년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신규물량 또한 수 도권과는 달리 줄어드는 추세다. 수도 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지방발 아파트 불황'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보합·하락세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 양극 화는 4월 이후 두 달 동안 이어지고 있 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 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주 대비 수도 권 0.04% 상승, 지방 0.03% 하락하며 4주 연속 보합이다. 서울은 0.06%, 인천과 경기는 모두 0.03%씩 상승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균열 조짐이 일 고 있다. 충북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대 구와 경북, 충남의 하락폭은 더 커졌 다. 시도별 매매가는 부산(0.06%), 강 원(0.03%)은 상승하고 세종과 제주는 보합했다. 경북(-0.16%), 대구(-0.12%), 충북(-0.11%), 충남(-0.06%) 등은 하락

전셋값도 요동치고 있다. 지방 아파 트 전셋값이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 세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전셋값이 하락 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7월16일 이후 약 3년10개월 만이다. 시도별로는 충북 (0.14%), 부산(0.07%) 등은 상승한 반 면 경북(-0.13%), 대구(-0.12%), 제주 (-0.04%), 충남(-0.03%), 광주(-0.03%), 울산(-0.01%)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0.08%)도 상 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0.06%, 경기 와 인천은 각각 0.09%와 0.06% 상승하 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단지 아파트 입주 가 시작된 광주와 지역 경제가 침체한 울산의 전셋값이 내려가면서 지방 전셋 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하고

#### ●지방아파트 분양물량 41% 감소

6월 지방아파트 신규 분양물량도 줄 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아파트 신규 분양예정물량은 전국 5만8975가 구다. 이중 4만2668가구가 수도권에 집 중돼 전월 대비 42.4%(1만2711가구) 증 가했다. 특히 서울은 전월 대비 1758.4% (1만515가구)나 증가했다. 재개발, 재 건축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늘 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총 2만9922가 구, 인천에서는 총 1633가구를 공급된 다. 신도시와 택지 지구에서도 신규 분 양 물량이 줄을 잇는다.

반면 지방은 전월 대비 41.1%(1만 1394가구)나 감소한 1만6307가구가 공 급된다. 지역별로는 ▲경남 5085가구 ▲부산 1483가구 ▲대전 2244가구 ▲경 북 2095가구 ▲전남 1781가구 ▲인천 1633가구 ▲강원 1350가구 ▲광주 704 가구 ▲충남 557가구 ▲전북 402가구 ▲세종 310가구 ▲충북 296가구 등이

부동산 홍보전문업체 더피알 정동휘 본부장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 화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은 주택 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돼 아파트시 장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며 "울 산, 거제 등의 지역경제 침체가 본격화 되면 아파트시장도 요동칠 수밖에 없 다"고 전망했다. 연제호기자 sol@donga.com



#### 에버랜드. 장미축제 시즌 공연 새 단장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가 장미축제 시즌 동안 새로운 공연들을 개막했다.

우선 판다월드 오픈을 기념해 제작한 판다 뮤지컬 '러 바오의 모험'이 지난 주말부터 정식 공연에 들어갔다. 판 다월드의 수컷 판다인 '러바오'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공연으로 노래, 댄스, 서커스가 결합된 캐릭터 라이브 뮤지컬쇼다.

저녁에는 인기 공연 프로그램인 멀티미디어 불꽃쇼 도 에버랜드 40주년을 기념해 '박칼린의 플레이 유어 메모리'로 업그레이드해 공연한다.



"테마파크 소프트웨어도 훌륭한 수출 콘텐츠." 한화리조트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아쿠아리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인정받아 첫 글로벌 진출의 성과를 거둔 중국 완다그룹 '난창완다해양 낙원.' 돌고래쇼 공연장. 사진제공 | 한화리조트

## 한화리조트 아쿠아리움 노하우 중국 전파

'난창완다해양낙원' 개장·운영

트)의 아쿠아리움 사업이 중국에 진 출했다. 한화리조트가 시공 및 설계 자문을 맡은 중국 최대 규모 아쿠아리 움 '난창완다해양낙원'이 28일 개장 했다. 2013년 중국 완다그룹과 아쿠

한화호텔앤리조트(이하 한화리조 아리움 사업파트너로 MOU를 맺은 한 화리조트는 2026년까지 '난창완다해 양낙원'의 시설, 공연, 생물관리, 마케

팅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중국 장시성 난창시에 있는 '난창완 다해양낙원'은 종합테마파크 '완다 시 티'의 핵심시설로 연간 52만명의 방문 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 쿠아리움은 축구장 5개를 합친 넓이 인 3만6000m<sup>2</sup>의 면적에 도자기로 유 명한 경덕전 청자를 모티브로 외관을 꾸몄다. 내부에는 세계 최대의 해초

류 수조(12m)와 메인 수조(8.5m), 세 계 최대 규모의 터치풀(400m²) 등 총 수량 2만 톤 규모의 수조에 고래상어, 돌고래 등 300여종 2만8000마리의 해 양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 제주 드림타워 착공

### 도 최초 카지노 복합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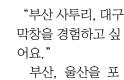


제주의 카지노 복 합리조트 드림타워 가 공사에 들어갔 다. 드림타워 카지 노 복합리조트의 건 축주인 롯데관광개 발과 중국 녹지(뤼

디)그룹은 27일 제주시로부터 착공신 고필증을 교부받고 곧바로 공사를 시작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1626개 객실을 갖춘 호텔과 레지던스를 비롯해 제주도 최대 규모인 3만9000m²의 쇼 핑몰, 국내 디자이너 부티크 100여개, 15개 레스토랑, 메디컬스파, 찜질방 등 을 갖춘다. 2층에는 게임테이블 200개와 슬롯머신 4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외국 인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 호텔과 외 국인전용 카지노, 쇼핑몰, 호텔부대시 설, 스카이라운지 등 연면적 59%는 롯 데관광개발이 소유·운영하고, 녹지그룹 은 호텔레지던스를 국내와 중국에서 분 양할 계획이다. 제주드림타워는 2019년 7월말 완공 예정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 외국인관광객, 부산·울산여행 가장 선호



함한 경남이 외국인 이 지방여행에서 가

장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를 통해 K트래블버스(사진) 노선 선호 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 답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노선으로 동남 권(부산, 울산, 경상남도)을 꼽았다. 동 남권 노선은 영어 사이트에서 응답자의 57%, 중국어 사이트에서 51%, 일어 사 이트에서 46.3% 등 주요 언어 사이트에 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언어권별로 보 면 영어 사이트에서는 동남권에 이어 대구, 강원도가 뒤를 이었다. 중국어 사 이트에서는 강원도, 대구 순이었고, 일 본어 사이트에서는 동남권과 대구(45.9%) 가 각각 절반 가까운 선호도를 기록하 며 인기가 높았다.

설문조사에서 밝힌 부산·울산·경남



K트래블버스 노선 선호도 설문 영·중·일 사이트서 동남권 1위 뒤이어 대구·강원 선호도 높아

는 해산물과 바다가 있는 부산에 가고 싶어서'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그외 지역축제나 좋아하는 한류스타의 고향 을 방문하고, 지역 사투리를 배워보고 싶다는 응답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동남권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도가 싶은 대구 여행 이유에서도 '동성로 쇼핑'과 '막창'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 화, 음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 다. 강원도는 바다와 산, 레저 체험을 하 지역을 여행하고 싶은 이유로는 '맛있 기 좋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겨울

연가' 등의 한류 드라 마 촬영지로 잘 알 려진 남이섬에 대 한 관심이 많았다. 이밖 에 경상북도는 '한국 의 역사를 배우고 싶

어서', 전라남도는 '음식과 자연환 경', 통영은 '가보기 힘든 곳인데 K트래 블버스를 이용하면 갈 수 있어서' 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한국에 대한 관심 을 가지게 된 계기로는 많은 응답자들 이 드라마를 꼽았고, 일부는 SNS를 통 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접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노선 선호도 조사를 한 K트래블 버스는 한국방문위원회와 문 화체육관광부, 서울, 대구, 강원도, 전 라남도, 경상북도, 동남권관광협의회(부 산, 울산, 경상남도) 등 8개 광역자치단 체가 공동 운영하는 외국인 지방투어 서비스다. 현재 강원, 대구, 전남,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과 올해의 관 광도시인 통영 등 6개 권역 노선을 운영 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 면역질환 베체트병, 한방치료가 효과적

진수고·탕약 등으로 면역 정상화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다양한 질환이 생기고 있 다. 대표적인 질환이 자가면역질환 베 체트병이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 관염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구강 궤양과 음부 궤양이다.

구강 궤양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나타 난다. 한 개나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데 처음에는 약간 솟아오른 종기로 시 작해 점차 궤양으로 발전한다. 구강 점 막, 혀, 잇몸 및 입술 등에 주로 발생해 통증을 유발한다. 음부 궤양은 구강 궤 양보다 발생 빈도가 적고 주로 구강 궤 양 후에 생겨난다. 구강 궤양과 달리 치 료를 해도 흉터가 남을 수 있고 크기도 크며, 오래 동안 증상이 지속된다.

베체트병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 도의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제때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포도막 염이 발생해 시력을 잃을 수 있고 심혈 관계, 소화기계, 중추신경계로 침범하 면 심각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치료법은 자가면역질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면역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면역체계를 바로 잡는 진 료는 한방치료가 있다. 한방치료는 각 신체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법으로 안성맞춤이다. 베체트병의 대표적인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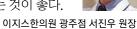
방치료는 진수고, 탕약, 약침요법, 왕뜸 등이 있다.

진수고는 면역계의 바탕인 신정을 충 분히 보충해 면역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탕약을 이용한 치료는 설진, 맥 진, 복진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뒤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한약 재를 통해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 체기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약침요법은 자연상태에서 추출한 성 분으로 만든 약침을 경혈자리에 주입하 는 치료다. 약침을 맞으면 항진균 및 항 세균 효과, 통증완화, 과민해진 감각 개 선, 면역체계 자극을 통한 면역기능 조 절 및 생체 방어력 증가, 항산화 활성작 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왕뜸은 하 단전 및 하초에 간접적인 열 전달을 통 해 혈류를 개선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하 게 만든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 항 체면역기능이 회복해 베체트병 치료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이 다. 베체트병은 면역체계 이상 질환이 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영 양소가 균형을 이룬 식단으로 면역력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 뜨릴 수 있어 독서나 여행 같은 취미를 통해 스트레 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 ■ 건강 단신

판시딜 모델 이시아, 드라마서도 주목

동국제약 탈모치료제 판시딜의 CF 모 델인 이시아가 KBS1 일일드라마 '별난 가족'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아는 2011년 걸그룹 '치치'로 데뷔해 MBC-TV '구암허준', tvN '시그널' 등 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판 시딜은 탈모에 좋은 약용효모와 모발, 손톱의 구성성분인 케라틴 등 6가지 활 성성분을 함유한 탈모치료제다.

광동제약 '경옥고' 스틱형 포장 리뉴얼 광동제약 경옥고가 편의성과 휴대성을 강조한 스틱형 파우치 포장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경옥고는 광동제약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이 처음 제약회사 영 업사원을 시작할 때 판매했던 제품으로 광동제약을 설립하고 최초로 생산한 제 품이다. 큰 병에 걸린 이후, 허약체질, 육체피로, 갱년기 장애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높아 오랫동안 소비자들에게 사 랑을 받아왔다.

#### 제26회 분쉬의학상 후보자 접수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공 동으로 제정 및 시상하는 제26회 분쉬 의학상이 7월 15일까지 후보자를 접수 한다. 올해로 26회인 분쉬의학상은 매 년 뛰어난 연구 성과로 국내 의학 발전 에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을 남긴 3명의 의학자들을 선정, 시상한다. 본상은 연 구업적이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의학자 1명에게 상패 및 메달 상금 5000만원을 준다. 젊은의학 자상은 학술적으로 가치와 공헌도가 인 정되는 우수논문을 발표한 의학자 중 기 초부문 1명, 임상부문 1명에게 각각 상패 와 메달, 상금 2000만원을 준다. 신청서 는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우편 혹은 이메일(science@

kams.or.kr)로 접수가 가능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